

< 치사 >

## “혼신의 열정이 여유와 감동으로 전해지길”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을 담당하고 특히 불교문화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온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제12회 작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에도 이렇듯 현시대를 대표하는 장인들의 혼신의 열정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책임지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솜씨와 기량을 지닌 기능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기란 결코 흔치 않은 빛나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선조 대대로 대물림한 전통기법을 따라 최고의 기량과 장인의 혼을 더하여 빚어놓은 작품들은 오늘을 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위안으로 마음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도 감동으로 전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의 여러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고유의 정서와 철학이 깃든 친숙하고 편안한 작품들을 통해 치유되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더욱 여물어지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남보다 갑절의 땀을 흘리며 애쓰신 기능인들의 노고에 큰 고마움을 드립니다. 더불어 문화재기능인협회 이근복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지혜로움과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 높고 구름 맑은 천고운담의 절기를 맞아하여, 청명한 기운으로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고, 많은 분들에게 행복으로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